

빼앗긴 우리 지명으로 보는 역사

인사동이

일본이 지은 이름이라고?

조지욱 글 | 박지연 그림 | 현암주니어

- 분야: 어린이 교양, 어린이 사회, 역사
- 주제: 일제에 의해 훼손된 우리 지명에 관한 이야기
- 관련 키워드: #지명 #사회 #지리 #역사 #일제 강점기
- 활동 목표:
 - 드러나지 않거나 생략된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며 이해하고 글을 읽을 수 있다.
 -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 | 교육 과정 연계 | 차시 |
|---------------------|---|--------------|
| 대상 학년 | 5-6학년 | 1차 (100분) |
| 관련 교과 단원 | 5학년 국어 5-1(가) 3단원 글을 요약해요. 5-1(나) 8단원 아는 것과 새롭게 안 것 5-2(나) 7단원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요. 6학년 국어 6-1(나) 6단원 내용을 추론해요. | |
| 국어 | | |
| 국어과 교육의 성취 기준 | [6국01-06] 드러나지 않거나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듣는다. [6국02-01] 읽기는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6국02-02]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다. | |
| 활동 단계 | 교수 - 학습 활동 | 시간 |
| 생각 열기 | 인사 나누기 알고 있는 도시, 산, 들, 바다, 강의 이름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세요. | 10분 |
| 본활동 | 활동 1 - 어휘 속으로 이야기로 배우는 어휘 ※ 다음 낱말들의 뜻을 살펴보고 물음에 답하세요.(1번~2번) 1. 위의 보기를 보고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넣어 보세요. 2. 위의 낱말들을 넣어 짧은 글을 지어 보세요. | 80분 |

활동 2 - 내용 속으로

1. 일본이 우리 땅 이름을 빼앗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백두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백두봉의 이름을 일제는 ‘대정봉’으로 바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다음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4. 일본이 ‘인사동’의 이름을 지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5~6번)
5. (가)~(마)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6. 5번의 내용을 참고하여 위의 글을 요약해 보세요.
7.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8. 홍성에는 홍주아문, 홍주성 역사 공원, 홍주성 역사관, 홍주 읍성 등 ‘홍주’라는 지명을 볼 수 있어요. ‘홍주’라는 지명이 많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9. 일본은 큰 도시에 ‘부’ 자를 붙였어요. 군산에 ‘부’ 자를 붙여 ‘군산부’라고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요?
10.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패배한 나라의 점령지를 지배할 때 언어나 지명을 바꾸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1. 해방 후 일제의 잔재를 지우기 위한 일들을 시작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명을 변경한 내용에 맞게 선으로 이어 보세요.
12. 지명을 변경하려 할 때 부딪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13. 지명을 바꾸려면 우선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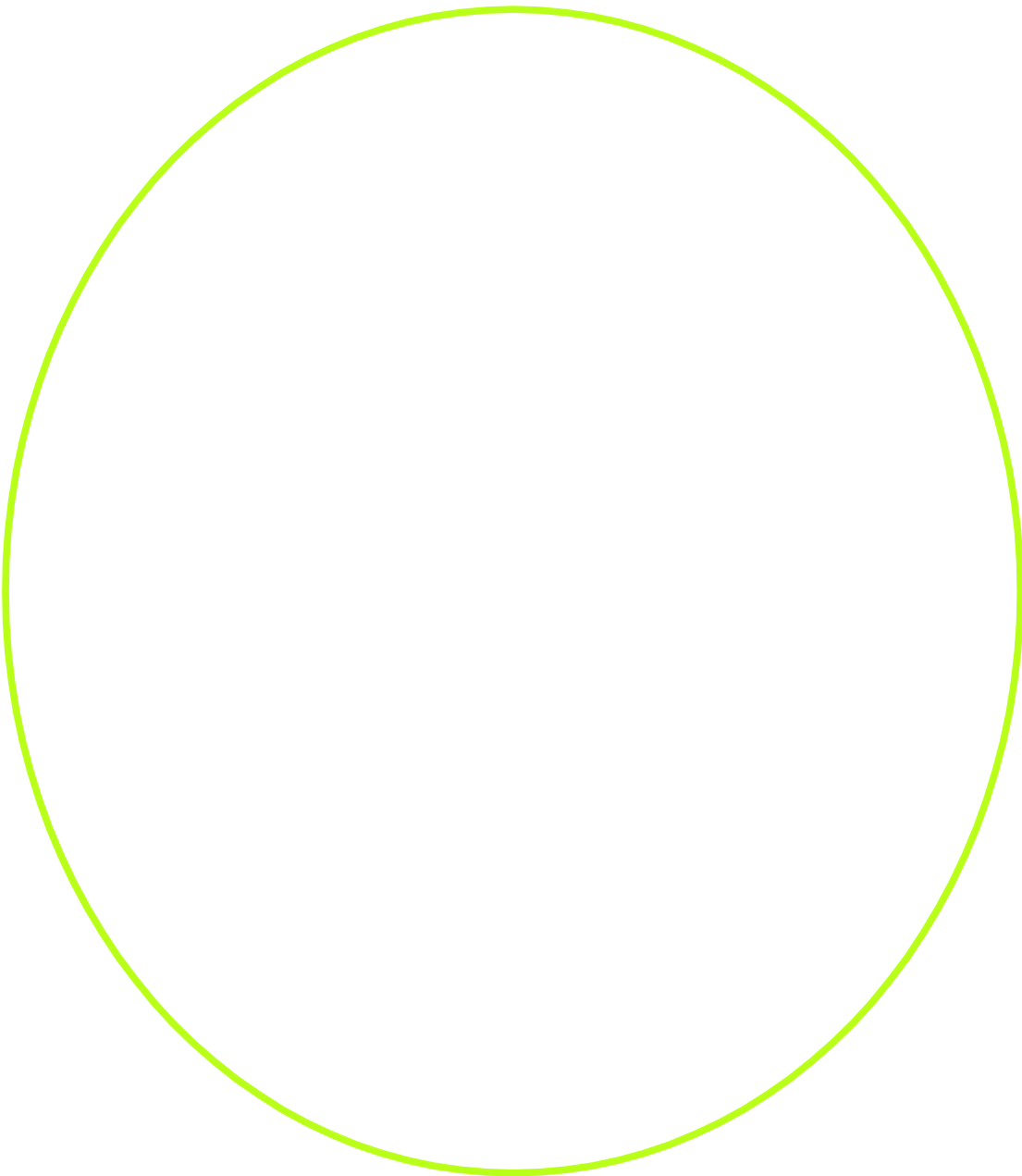
활동 3 - 생각 속으로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3번)
1. 일제가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이름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망가지는 궁궐을 보고, 강제로 바뀐 이름으로 들을 때 조선의 왕과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3. 일본의 행동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4~5번)
4. 왜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었나요?
5. 최근 칠곡에서는 왜관읍, 왜관역, 왜관나들목 등의 이름을 칠곡읍, 칠곡역, 칠곡나들목으로 바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추론하여 보세요.
6. 지명 변경에 대한 서울 원남동 주민들과 봉천동 주민들의 선택과 입장은 달랐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7. 지명은 어떤 것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8.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는 지명을 변경해야 할까요? 아니면 변경하지 않아도 될까요?
9.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는 지명을 바꾸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10.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지명, 그리고 지명의 뜻과 유래를 조사하여 적어 보세요.
11. 지명은 산, 바다, 강, 날씨 등 자연환경이나 방향, 산업, 건물, 시설 등

| | | |
|----------|--|-----|
| | <p>인문 환경 등을 고려해 붙여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고 지명을 지어 봅시다.</p> <p>활동 4 - 생각 펼치기</p> <p>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는 지명 변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광고를 만들어 보세요.</p> | |
| 마무리 | <p>수업 내용에 대한 느낌을 간단히 이야기한다.</p> <p>다음 차시 예고</p> | 10분 |
| 관련 활동 | <p>우리 지명에 대한 영상물 시청하기</p> <p>일본에 의해 훼손된 우리 지명에 대한 설명문 쓰기</p> | |
| 평가 초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러나지 않거나 생략된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며 이해하고 글을 읽을 수 있는지 평가한다. ■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

생각 열기

알고 있는 도시, 산, 들, 바다, 강 등의 이름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세요.



어휘 속으로

이야기로 배우는 어휘

※ 다음 낱말들의 뜻을 살펴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 보기 >

- 침탈 - 남의 영역에 강제로 침범하여 빼앗음
- 토벌 - 무력으로 쳐 없앴
- 출몰 - 어떤 현상이나 대상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함
- 잔재 - 남아 있음

1. 위의 보기를 보고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넣어 보세요.

-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후 일제의 (잔재)를 지우기 위한 일들을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107쪽)
- 왜관은 바닷가에 (출몰)해 노략질하는 왜구를 줄이고자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처음 설치했어요. (68쪽)
- 이성계 장군 시절 때 일이었어요. 장군이 왜구를 (토벌)하러 가던 중 남원의 한 마을에서 휴식을 취하며 잠이 들었어요. (83쪽)
- 강대국들이 군사력을 앞세워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강제로 (침탈)하고 식민지로 삼았어요. (14쪽)

2. 위의 낱말들을 넣어 짧은 글을 지어 보세요.

■ 침탈:

■ 토벌:

■ 출몰:

■ 잔재:

내용 속으로

1. 일본이 우리 땅 이름을 빼앗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한 것처럼 우리 민족을 하나로 잇는 민족정신을 없애고, 자신들의 편리대로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다. (15쪽)

2. 백두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백두봉의 이름을 일제는 '대정봉'으로 바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정'은 일본 천황의 연호이다. 우리 민족의 기상을 꺾기 위한 의도였기 때문이다. (23쪽)

3. 다음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일본은 우리 민족을 하나로 잇는 ()에 있는 여러 지명들도 마음대로 바꾸었어요.
()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물을 건너지 않고 갈 수 있는 우리 땅의 척추와도 같은 산줄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을 통해 하나의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 23쪽 -

백두대간 (23쪽)

4. 일본이 '인사동'의 이름을 지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인사동은 '관인방'이라는 큰 행정 구역에 속했고, 큰 절이 있어서 '대사동'으로 불렸다. 그런데 일제가 '관인방'과 '대사동', 두 지명에서 한 글자씩 떼어 내서 '인사동'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무성의하고 무례한 방법이다. (31쪽)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5~6번)

(가) 어디 산에 가면 사냥감이 많다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산이 여러 곳에 있으니, 그냥 산이라고만 하면 헛갈릴 거예요. 이럴 때 부엉이 닮은 바위가 있는 산은 ‘부엉이산’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대화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지명에는 자연스럽게 산이나, 강, 바다 같은 자연환경이 많이 포함됐어요.

(나) 지명은 모양을 본떠 만든 것이 많아요. 전북 진안에 있는 마이산은 두 산의 봉우리가 말의 귀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 붙여진 지명이에요.

또 강원도 영월군에 가면 마치 우리나라 지도처럼 생긴 곳이 있어요. 이곳의 본래 지명은 ‘서면’이었는데, 이러한 모양을 본떠 ‘한반도면’으로 지명을 바꾸었어요.

(다) 지명에는 ‘북한산, 서대문, 동대문’처럼 동서남북 방향을 나타내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 ‘남문, 남한강, 남해’처럼 ‘남’이라는 지명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남쪽과 앞을 뜻해요. 우리나라는 겨울이 추워서 전통적으로 집이 해가 잘 드는 남쪽을 향하는 경우가 많아, 집 앞이 곧 남쪽이라고 생각했어요.

(라) 처음 우리 땅의 이름은 그 당시 쓰던 우리말로 지었어요. 하지만 문자가 없었을 때는 기록을 못 하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지명이 전해졌을 거예요. 그러다가 삼국 시대 때 한자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면서 지명을 한자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큰 산’이라는 지명을 ‘대산(大山)’으로 바꾸는 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순우리말 지명을 발음과 뜻 그대로 모두 한자로 옮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영어인 ‘커피’를 그대로 한자로 옮기기 어렵듯이요. 그래서 이해하기 힘든 지명이 생겨나기도 했어요.

(마) 지명에는 사람 이름이 들어간 경우도 많아요. 강원도 춘천에 있는 ‘남이섬’은 조선 시대 무신인 남이 장군의 이름을 붙인 지명으로, 남이 장군의 묘도 있어요. ‘남이섬’이란 지명은 남이섬에 있는 한 돌무덤에 남이 장군이 묻혀 있다고 전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정착됐어요. (40~ 43쪽)

5. (가)~(마)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40~43쪽)

| | |
|-----|--------------------------------------|
| (가) | 지명에는 산이나, 강, 바다 같은 자연환경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
| (나) | 모양을 본떠 만든 지명이 많다. |
| (다) | 동서남북 방향을 나타내는 지명도 많다. |
| (라) | 이해하기 힘든 지명이 생겨나기도 했다. |
| (마) | 사람 이름이 들어간 지명도 많다. |

6. 5번의 내용을 참고하여 위의 글을 요약해 보세요.

지명에는 산이나, 강, 바다 같은 자연환경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모양을 본떠 만든 지명, 동서남북 방향을 나타내는 지명, 이해하기 힘든 지명, 사람 이름이 들어간 지명 등이 있다.

7.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종로는 본래 땡, 땡 울리는 큰 종(鐘)이 있는 길이라는 뜻으로 '종로(鐘路)'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종로의 '종'(鐘)은 (쇠북)을 말해요. 조선 시대에는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한양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종을 울려서 성문을 열고 닫는 시간을 알려줬어요. (중략)
그런데 '종로'의 한자 표기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비슷한 한자인 '종로(鍾路)'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종(鍾)'은 (술잔)을 의미해요. (51쪽, 53쪽)

8. 홍성에는 홍주아문, 홍주성 역사 공원, 홍주성 역사관, 홍주 읍성 등 '홍주'라는 지명을 볼 수 있어요. '홍주'라는 지명이 많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려 이후 '홍주'라고 불려 오다가, 일제 강점기 때 일제에 의해 '홍성'으로 지명을 변경됐기 때문이다. (72쪽)

9. 일본은 큰 도시에 '부'자를 붙였어요. 군산에 '부'자를 붙여 '군산부'라고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요?

군산 지역은 중국과 일본에서 드나들기 유리했고, 군산을 포함해 인근 지역에는 평야가 발달해서 벼농사를 짓는 곳이 많았다. 일본은 군산 지역의 쌀을 군산항으로 가져와 일본으로 가져갔다. 일본인들의 거주지가 만들어졌고,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갯벌을 매립했고, 도로가 만들어질 때마다 우리 고유의 지명이 하나씩 사라졌다. 군산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일본이 본격적으로 군산 땅을 이용하겠다는 이유이다. (88쪽, 89쪽)

10.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패배한 나라의 점령지를 지배할 때 언어나 지명을 바꾸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존에 있던 나라의 흔적을 지우고 자신들의 역사를 남기기 위해서다. (94쪽)

11. 해방 후 일제의 잔재를 지우기 위한 일들을 시작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명을 변경한 내용에 맞게 선으로 이어 보세요. (①-㉔ ②-㉓ ③-㉒ ④-㉑ ⑤-㉐ ⑥-㉏) (107쪽, 108쪽)

| | | | | | |
|---|------|---|---|---|-----|
| ① | 혼마치 | · | · | ㉓ | 원효로 |
| ② | 모도마치 | · | · | ㉐ | 태평로 |
| ③ | 고가네초 | · | · | ㉔ | 충무로 |
| ④ | 광화문동 | · | · | ㉒ | 을지로 |
| ⑤ | 태평동 | · | · | ㉑ | 노들섬 |
| ⑥ | 중지도 | · | · | ㉏ | 세종로 |

12. 지명을 변경하려 할 때 부딪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비용 문제와 사람들의 의견이 달라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111쪽)

13. 지명을 바꾸려면 우선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개인이나 단체에서 지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조사한다. 시·군·구에 속한 지명위원회에 올린다. 그 뒤 전문가들의 심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15쪽)

생각 속으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3번)

일제 강점기인 1907년에 조선 시대 5대 궁궐 중 하나인 창경궁은 일제의 손에 훼손돼 동물원과 식물원으로 탈바꿈되는 치욕스러운 역사를 겪었어요. 그러면서 이름도 ‘창경궁’에서 ‘창경원’으로 낮춰 불렸죠.

(중략)

창경궁 공사는 대표적인 친일파, 이완용이 일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휘했어요. 전각의 문이나 기와 등은 해체한 뒤 문화재는 경매를 통해 팔았고, 훼손된 궁에는 일본의 상징인 벚나무를 마구 심었어요.

이를 보다 못한 순종이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창경궁의 이름을 ‘창경원’으로 마음대로 바꾸었어요. ‘창경원’의 ‘원’은 울타리를 쳐 놓고 짐승을 기르는 임야, 동산을 뜻하는 ‘나라동산 원(苑)’이라는 한자예요. (10쪽, 11쪽)

1. 일제가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이름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조선 왕실이 권위를 훼손하고, 조선 민족의 맥을 끊기 위해 이름을 바꾸었다.

(10쪽)

2. 망가지는 궁궐을 보고, 강제로 바뀐 이름으로 들을 때 조선의 왕과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 까요?

예시답)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억울하고 분하고 마음 아팠을 것 같다.

3. 일본의 행동에 대해 나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4~5번)

왜관은 경상북도 칠곡군의 군청이 있는 곳이자, 기차역인 왜관역이 있는 칠곡의 중심지예요. 일제와 관련된 지명 중 ‘일본 왜(倭)’ 자에 ‘집 관(館)’ 자를 쓴 ‘왜관(倭館)’만큼 일본 냄새가 물씬 나는 지명도 드물어요.

본래 ‘왜관’은 무역을 위해 설치한 일본인 숙소예요. 하지만 왜관에서는 잠만 자는 게 아니라 물건도 거래했어요. 또한 부산에 있었던 초량 왜관처럼 큰 왜관에는 도자기를 만드는 공장도 있어서, 일본인에게 주문을 받아 도자기를 제작하기도 했어요.

왜관은 바닷가에 출몰해 노략질하는 왜구를 줄이고자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처음 설치했어요. 또한 일본인들이 우리 땅 아무 곳에서나 장사를 해서 일본 물건이 조선 시장으로 밀려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했어요. 왜관에는 허가받지 않은 조선인은 출입이 금지됐고, 일본인도 허가 없이 바깥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왜관은 일본과 가까운 부산, 울산 등 바닷가와 칠곡처럼 강가에 설치했어요. 그중 칠곡 왜관은 아주 작은 왜관으로, 낙동강 물길을 이용하는 상인과 사신이 머무는 숙소 정도로 쓰였어요. 나머지 왜관도 일본과 무역이 줄면서 조선 말에 거의 폐쇄됐어요.

그런데 칠곡군의 ‘왜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명으로 남았어요. ‘왜관읍’은 1905년 경부선 철도 왜관역이 생긴 후, 역 이름에서 따와 지금까지 쓰이고 있어요.

당시 양반들도 철도가 마을 지나는 것에 반대했지만, 일본인들은 역지로 철도를 설치한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옛 흔적을 나타내려고 ‘왜관’이라는 지명까지 붙였어요.

최근 칠곡에서는 왜관읍은 ‘칠곡읍’, 왜관역은 ‘칠곡역’, 왜관나들목은 ‘칠곡나들목’으로 지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68~70쪽)

4. 왜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었나요?

왜관은 바닷가에 출몰해 노략질하는 왜구를 줄이고자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처음 설치한 무역을 위해 설치한 일본인 숙소이다. (68쪽)

5. 최근 칠곡에서는 왜관읍, 왜관역, 왜관나들목 등의 이름을 칠곡읍, 칠곡역, 칠곡나들목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추론하여 보세요.

예시답) ‘일본 왜(倭)’ 자에 ‘집 관(館)’ 자를 쓴 ‘왜관(倭館)’만큼 일본 냄새가 물씬 나는 지명이다. 일제가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려고 왜관역이라고 짓고, 지명도 왜관읍이라고 지은 것이다. 칠곡 주민들은 지역에서 일제 잔재를 깨끗이 없애 지역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싶어 지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

6. 지명 변경에 대한 서울 원남동 주민들과 봉천동 주민들의 선택과 입장은 달랐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원남동 주민들의 지명 변경 반대 | 봉천동 주민들의 지명 변경 찬성 |
|--|---|
| ‘원남동’이라는 지명이 익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혐오스럽지 않으니 꼭 바뀌야 한다는 생각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113쪽) | ‘봉천동’은 1960년대 농촌에서 온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판자촌이었다. ‘달동네’라 불리며 서울에서 가난한 동네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곳이기 때문에 가난한 이미지가 싫다며 주민들은 지명 변경을 희망했다. (114쪽) |

7. 지명은 어떤 것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 |
|------------------------|
| 지역 이미지, 땅값이나 집값 (114쪽) |
|------------------------|

8.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는 지명을 변경해야 할까요? 아니면 변경하지 않아도 될까요?

■ 나의 생각:

■ 그렇게 생각한 이유:

9.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는 지명을 바꾸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예시답)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주변에 지명 변경에 대한 중요성을 알린다. 등

10.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지명, 그리고 지명의 뜻과 유래를 조사하여 적어 보세요.

■ 우리 지역의 지명:

■ 지명에 담긴 뜻이나 유래:

11. 지명은 산, 바다, 강, 날씨 등 자연환경이나 방향, 산업, 건물, 시설 등 인문 환경 등을 고려해 붙여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고 지명을 지어 봅시다.

■ 새로 지은 지명 :

■ 붙여진 이유 :

생각 펼치기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는 지명 변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광고를 만들어 보세요.